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5. 27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강상훈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김승남	☎ 760-747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신품종 맥주보리 ‘새호품’ 호평...현장 만족도 83.2점

- 기존 품종 대비 병 저항성·수량성 우수...농가 실증 통해 보급 확대 추진 -

- 기존 품종보다 병에 강하고 수확량도 20% 이상 뛰어난 신품종 맥주보리 ‘새호품’이 제주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맥주보리 ‘새호품’의 현장 실증 결과, 기존 품종인 ‘호품’보다 수확량이 높고 품질도 우수해 맥주 원료로서의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.
 - ‘새호품’은 기존 ‘호품’과 병에 강한 ‘백호’를 교배해 만든 신품종이다. 맥주 특유의 제조 특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병 저항성과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.
- 최근 3년간(2022~2024년) 제주 지역 적응시험 결과, ‘새호품’은 농가의 골칫거리인 흰가루병과 보리호위축병에 강한 특성을 보였다. 10a(약 300평)당 수확량은 476kg으로 조사돼 기존 ‘호품’ 대비 21%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다.
 - 또한 천립중*은 42.1g으로 무겁고 정립률**이 우수했으며, 맥주 추출률은 83.4%로 기준치(80.5%)를 웃돌아 고품질 맥주보리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.
 - * 천립중: 낱알 천 개의 무게. 보통 곡물 따위의 낱알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
 - ** 정립률: 농산물 검사에서 피해립, 미성숙립, 이종곡립, 이물질 등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의 비율



- 농업기술원은 ‘새호품’의 현장 적용성과 보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0.2ha 규모로 시작한 농가 실증연구를 올해 2ha 규모로 대폭 확대 추진했다.
- 아울러 지난 18일 안덕면 동광리에서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와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. 참석자들은 품종 특성과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, 공급 확대 필요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했다.
 - * 조사내용: 성숙기, 쓰러짐, 병 저항성, 수량성, 재배 의향, 공급 확대 필요성, 전반적인 만족도
-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3.2점으로 나타났다. 세부적으로는 ▲공급 확대 필요성(92.7점) ▲‘호품’ 대비 전반적인 만족도(88.8점) ▲재배 의향(87.7점)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.
- 현장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병 발생 감소와 재배 안정성 향상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,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.
-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‘새호품’ 보급 확대를 위해 종자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- 당장 2026년 10ha 규모 보급을 시작으로, 2030년까지 100ha 수준으로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이정배 식량작물연구팀장은 “새호품은 병 저항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제주 맥주보리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농가 실증과 현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한편 2024년 기준 제주지역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1,430ha, 생산량은 3,096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6%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주요 생산지로 자리하고 있다.